

선교서신

(2023년 1월 16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리며 바누아투 선교서신을 드립니다.

분랍 미전도부족에서 선교로 낳은 아들 베베가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2012년 분랍 부족을 처음 방문했을 때 그 부족에서 유일하게 영어를 할 줄 알아서 저와 의사 소통을 할 수 있었고 분랍미전도부족 선교의 동역자였던 베베가 우리의 곁을 떠나 다시는 올 수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베베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목요일 (12월8일) 오후였습니다. “빠빠! 요즈음 내가 배가 답답한데 약 좀 있으면 주세요”

소화제와 제가 먹고 있는 위장약을 주었습니다.

베베가 우리 곁을 떠난 후에야 비로소 배가 답답한 것이 아니라 가슴이 답답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한 것을 배가 답답한 것으로 인식했었나 봅니다.

펜티코스트 아일랜드 공항 바로 앞으로 빌리지에 미션센터를 짓기 위

해 분랍에서 데려온 10명의 아이들과 함께 블록을 찍다가 어제 보았던 베베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들도 저도 한동안 공황상태에 빠졌습니다. 하던 일손을 멈추고 기도로 아이들을 위로해 준 뒤 베베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트럭을 불러서 장례에 필요한 쌀 2부대를 아이들 손에 들리어 부족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베베는 3남1녀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는 큰아들 크리스와 올해에 초등학교에 들어갈 와무 그리고 그 동생 와타스와 지베라는 딸이 있습니다.

저는 베베 대신에 이 아이들이 학교를 마칠 때까지 도와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많이 애석합니다. 저를 위한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제목

- 1.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 2.베베의 아내 올리브와 4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 3.펜티코스트 아일랜드 미션센터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4.2월 새학기가 시작할 때 분랍의 소년 소녀들이 학교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5.바이블스쿨과 목수학교 목공학교를 지어 분랍의 청년들을 데려와 복음을 전하러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